

# 불붙은 油價... 물가 상승 부추긴다

경기부진과 중국 효과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소비자물가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압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고공행진을 거듭하는데다 곡물가격의 급등,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등이 겹치면서 그동안 생산·유통 과정에서 최대한 흡수했던 가격상승 요인이 내년부터는 최종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소비자물가의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로 안정세를 나타냈으며 1-8월 누적으로도 2.3%에 그쳤다. 이는 한이은 중기물가안정 목표표 상과 있는 2.5-3.5% 범위를 하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이후부터는 2% 중반대로 올라서고 내년부터는 3% 선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 곡물가 폭등·태풍피해도 압박요인 올 2%대 상승률 내년 3%대 육박할 듯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8월의 원유도입단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한다. 9월들어서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함에 따라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태풍에 따른 피해로 농수산물 가격 급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밀을 비롯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소맥의 국제시세는 2005년말 부셴당 339.3센트였으나 작년말 501센트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들어서는 7월말 630센트에 이어 8월말에는 767센트로 급등했다. 1년반만에 배 이상으로 폭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밀을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물론 대중음식점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내년초부터는 가격 전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게 물가당국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여기에 경기회복세와 함께 수요부문의 물가상승 압박이 현실화하면 물가상승세는 한층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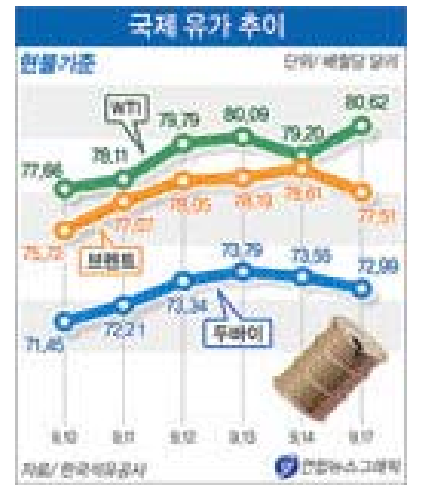
는 정도 흡수하는 역할을 했던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할 경우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연간으로 2.2%에 그쳤으며 올해는 2.3%를 나타낼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4·4분기부터는 2.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 압박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8월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유가 급등과 밀 가격의 폭등, 그리고 태풍피해와 수요압력 등이 겹치면서 가중되는 물가상승 압박이 내년초부터 각종 공산품 가격과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지속 전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나드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WTI 배럴당 81.18달러 사상 최고

(서부텍사스중질유)

### 시간의 거래서 최고가 경신 달러 약세 당분간 유가 강세

국제유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 시간의 거래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정규장보다 61센트(0.8%) 오른 81.1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정규장에서도 10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1.47달러(1.9%) 오른 배럴당 80.57달러에 거래를 마감, 1983년 거래가 시작된 이래 최고가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



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달러 약세를 이끌어 당분간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IMF 위기는 한국정부 돈놀이 탓” 그린스펀 회고록... “250억弗 민간은행에 빌려줘 부실 초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FRB) 의장은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미국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한국 정부가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를 민간은행에 대출, 외환부족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IMF(국제금융기구) 사태를 초래했다고 17일 주장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이날 발간한 회고록 ‘격동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서의 모험’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반세기전의 초

라한 ‘근원’으로부터 놀라운 발전의 길로 걸어왔다고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IMF 당시 미국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250억달러로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맞서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당시 우리가 몰랐던 것은 한국정부가 외환보유고를 갖고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민간은행에 팔거나 빌려줬으며 그것으로 인해 ‘약속대출’을 더 많이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린스펀 전 의장은 또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 등 이른바 아시아의 네 호랑이가 지난 1997년의 금융위기사태와 같은 경제위기를 겪을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4개 국가가 “임금은 낮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경제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외국투자에 개방했다”면서 “투자자들이 성공하게 되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 금융시스템 아직 멀었다” “기업 M&A 각종 규제·장애 많아”... 박현주 회장 쓴소리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한국 금융시장 시스템이 아직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18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박현주 회장은 17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CEO포럼’의 강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금융마인드를 갖고 일찍 세계 시장에 나가 인수합병(M&A)을 시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해외 M&A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홍콩,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규제의 문제”라며 “특히 기업 M&A에 각종 규제와 장애가 있는데 기업 M&A를 훨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금융만큼 사람에게 대한 투자가 중요한 곳이 없다”고 강조하며 “과거 6년간 채권만 사들여 물가상승률도 커버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엉터리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 컨셉트는 주식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라며 “국민연금이 교과서대로 했다면

주식을 30%는 사야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또 “부동산에 몰린 한국의 자산구조는 교정될 것”이라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진시장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돈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콩의 자산가격은 싸보인다”면서 “조만간 홍콩에 3천억원짜리 펀드를 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래형 교실 체험.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이러닝(e-Learning)·가상학습 현황을 보여주고 국내외 기업들의 제품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러닝 제품 박람회'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어린이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미래형 교실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 내년부터...보일러 등 고효율 기자재 사용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도입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도가 도입돼 표준건축물보다 에너지소비총량이 많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진다. 표준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산정되며 사업주가 제출한 에너지설계계획서 등이 미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을 요청한다. 또 에너지절감계획기준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창호, 보일러, 조명설비 등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무 사용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재생·재활용 건축자재에 대한 인준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본인 서명 없는 보험계약도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가 당사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 계약을 맺었다면 손해 배상도 절반 이상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 명의로 재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서명한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명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유요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보험모집인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알아보고 어머니의 서명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박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원 중 60%인 3천만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미성년자 출국 10만명 넘었다

조기유학 연수붐 탓

조기 유학 및 연수가 성행하면서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해외 출국과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한국계 약 4만명을 포함한 중국인 입국자가 40% 가까이 증

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06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한 9세이하 내국인은 모두 4만611명으로 전년의 3만5천876명보다 13.2% 늘었고, 10~19세 출국자도 5만978명에서 6만80명으로 17.9%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출·입국은 모두 3개월이상에 걸쳐 이뤄진 것

만을 집계했다. 통틀어 19세이하 출국자는 총 10만 691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출국자에서 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3.1%에서 24.5%로 1.4%포인트 늘었다. 내국인 출국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15만2천251명)로 36.9%를 차지했고 이어 30대(7만4천44명) 18.0%, 10대(6만80명) 14.6%, 40대(4만4천722명) 10.8%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 “한국인, 소득에 비해 빚 많다” 가계대출 중 비주택 대출 71%달해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소비자 신용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인은 물품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를 총괄하는 ‘판매 신용’이 선진국에 비해 심하게 왜소화된 반면,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가처분소득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가계 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 신용의 합으로, 가계대출은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말하며, ‘판매 신용’은 물품의 생산·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인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과 백화점 자동차 가전제품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외상거래를 포괄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지출 비중은 53.5%로 일본의 57%, 미

국의 69.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판매 신용은 지난해 말 현재 민간소비지출 대비 6.9%에 불과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 달러였던 1994년의 8.8%보다 오히려 줄었다. 미국은 민간소비지출 대비 판매 신용이 1인당 GNI가 1만달러에 달한 1978년 이미 21.8%를 기록했고 GNI가 2만달러였던 1988년에는 22.8%였다. 일본은 1인당 GNI가 1만달러였던 1984년 5.7%에서 2만달러였던 1988년 11.2%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판매 신용 규모가 작은 것은 2003년 발생한 카드대란으로 소비자 신용 시장의 발달이 늦어졌고, 소비자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은 116.7%에 달해 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은 46.1%에 불과한 반면 비주택 대출은 70.7%에 달해 비주택 부문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으로 가계대출시장이 과다해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광주 디자인 전문업체 (주)씨컴

#### ‘감성도시 조명시장’ 개척 나서

광주지역의 디자인 전문업체인 (주)씨컴(대표 강태선)이 환경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감성도시경관 조명시장’ 개척에 본격 나섰다. 도시야간경관조명은 ▲빛의 지능형 조명 연출인 ‘컨버전스 시스템(Convergence System)’을 기반으로 한 감성조명의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시야간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야간경관조명은 ▲빛의 고유함과 부드러움 ▲외부환경에 반응하는 조명 연출 ▲빛의 의미 전달 등 감성조명 디자인을 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으로써 자체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광주시의 전략산업인 광산업 발전에도 기여가 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심미안	편집 및 광고 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1	062-651-6968
☎친초	일반사무직 여직원을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9/21	062-265-6250
☎기영미디스	품질관리부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22	062-952-9442
에네스건설	에네스 건설 재무분야 경력자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22	062-572-5500
영창중공업	기술부 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7	062-384-0042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 '하이브리드 FFS' 모집 (광주센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8	062-231-6720
☎서원건설	건축견적사무원 및 공무, 현장관리	대졸/경력1년	1800~2000	09/28	062-512-8873
☎HRN	[광주·순천·목포]SK텔레콤 통신기술직 남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30	062-529-2671
대현개발	임원 수행기사 경력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30	062-384-6859
청화산업	사무관리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9/30	062-973-2043
공전제과	판매 영업 및 매장관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30	062-671-3477
신안중공업	조선분야 설계 설계 경력자 직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30	062-384-0042
보현산업	품질관리 및 보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1	062-956-9600
대영농업회사법인	경리,인포 여사원/ 차량운전 남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1	062-373-1600

(광주광역시 512-6210 제경7)